전환기의 방위산업 재도약에 부쳐 …

● 鄭 秀 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脫냉전과 소련의 와해, 남북한 UN 동시가입등 일련의 대내외적 정세변화와 함께 東西화해의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보의식의 이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와 함께 기술패권주의로까지 일컬어지는 선진국의 두터운 기술보호의 장벽은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一助를 해온 방위산업진흥회의 상근부회장에 부임하게 되어, 영예와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의 몇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방위산업의 위상 재정립과 긴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注力하겠습니다

최근 안보위협의 변화와 함께 지금은 물론 장차 통일이후에도 주변 열강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에 비추어 볼때, 외세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우리 방위력의 현주소가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대전에 부합되는 첨단 고도 정밀병기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방위산업의 역량은 더욱 배가(倍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 볼때 우루과이라운드(UR) 등으로 이제 자동차, 전자 등 개별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선진 외국은 이러한 힘을 防産으로 돌리고 있으며,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위산업의 위상 재정립은 국가자존을 위한 자주국방의 측면에서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민간차원에서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국내기술개발 활성화에 더욱 크게 기여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 70년대초 자주국방의 절대적 필요성과 중화학공업 육성전략에 맞물려 태동한 우리의 방위산업은 기본병기의 양산과 더불어 일부 고도정밀병기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의 지속적인 기여와 함께 국내기술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제 방위산업은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을 위해 다시금 도전할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관련산업의 기술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입니다.

셋째, 방산업체와 관계기관간의 가교(架橋)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이제 창립 16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本 會는 업계의 여론수렴과 함께 활발한 중재노력에 이어, 적극적인 정책건의를 통해 많은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국제공동협력의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관계기관간의 중개자로서 더욱 활성화된 정책건의와 함께 국내 기술조사와 기술축적을 위해 진력(盡力)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의 위상 재정립과 이에 따른 민간차원에서의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면서, 국내 기술개발의 활성화 및 방산업계와 관계기관간의 架橋로서의 역할 수행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